

‘특별한 전남’ 지역특화 마이스관광 주목

도, ‘유니크베뉴’ 20곳 선정
목포 미식문화 해관1987 등
생태·역사·문화 색다른 매력

전남도가 지역 고유의 매력을 지닌 특화시설을 활용, 마이스(MICE) 관광 활성화에 나선다. 전남도는 20일 “전남관광재단과 함께 전남만의

매력과 특별함을 지닌 시설 ‘전남 유니크베뉴’를 선정하고, 마이스관광 활성화를 통한 국내외 관광객 1억명 유치에 주력한다”고 밝혔다. 유니크베뉴는 ‘독특한’의 의미인 유니크(Unique)와 장소를 뜻하는 베뉴(Venu)의 합성어로서 컨벤션, 호텔 등 전문회의 시설이 아닌 지역의 독특한 정취와 색다른 매력을 느낄 수 있는 회의 장소를 뜻한다. 전남도는 이번 유니크베뉴 선정을 통해 자연·생태·역사·문화 등 전남의 우수한 자원과 연계

한 차별화된 시설을 널리 알려 경쟁력 있는 지역 특화 마이스산업을 육성할 계획이다. 유니크베뉴 선정은 22개 시군에서 추천한 29개 시설을 대상으로 시설 고유의 특성 및 매력도, 마이스 행사 적합도, 운영 역량 및 참여 의지 등 전문가 심사를 통해 이뤄졌다. 이번에 선정된 곳은 ▲목포 미식문화갤러리 해관1897 ▲여수 예술마루&장도 예술의 섬 ▲나주 3917마중 ▲구례 상산재 ▲무안 황토갯벌랜드 등이다.

또 ▲곡성 아트빌리지 ▲고흥 소록도 마리안스와 마가렛 나눔연수원 ▲영암 가야금산조 기념관 ▲장성 청백한옥 ▲진도 운림삼별초 공원 ▲신안 하의해양테마파크 등 18개 시군 20곳이다. 구 목포 세관창고로 활용됐던 목포 미식문화갤러리 해관1987, 문화예술의 너울이 넘치고 전통가옥의 마루처럼 편안함이 깃든 여수 예술마루, 자연 속 고택의 맛과 낭만을 지닌 구례 상산재, 복합문화예술공간인 담양 해동문화예술촌, 현대인의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장흥 정남진 편백숲 우드랜드 등이 이색 시설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전남도는 선정된 유니크베뉴에 대해 인증서를 수여하고, 시설 개선, 설명회 및 박람회 등 각종 홍보마케팅 활용, 도내 마이스 개최 인센티브 가산 등 마이스 활성화를 위해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유니크베뉴 자격은 2년간 유지되며, 추후 운영 현황 등 실적 평가를 통해 지속 여부가 결정된다. 조대정 전남도 관광과장은 “전남은 우수한 역사·문화·관광 자원의 매력을 만끽할 수 있는 중소규모 마이스 행사의 최적지”라며 “다양한 유니크베뉴를 발굴·육성해 지역 마이스산업을 특 키워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근산 기자



광주·전남보도사진 순회전시전 김영록 전남도지사와 실·국장 등이 20일 오후 도청 윤선도홀실에서 ‘현장의 눈빛’을 주제로 열린 2023년 광주·전남보도사진 순회전시전에서 전시작품을 관람하고 있다. 이번 전시는 오는 24일까지 열린다. /전남도 제공

“전남 농어촌 응급의료체계 무너져 간다”

도의회-응급의료기관 간담회
필수진료 구인난·공보의 감소
“인력증원 등 국가대책 시급”

지방의료원의 필수진료과목 구인난에 이어 올해 공중보건의 병역자원도 급감을 예고하는 등 농어촌 의료취약지의 응급의료체계가 흔들리면서 국가 차원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0일 전남도의회에 따르면 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는 최근 도내에서 지역응급의료기관을 운영하는 9명의 병원장과 간담회를 갖고 농어촌 의료취약지 응급의료 실태와 개선방안을 모색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병원장들은 “24시간 응급실 운영을 위한 의사를 구하지 못해 고령의 병원장들이 밤새 당직을 서며 환자를 돌보고 있는데다

심각한 경영난으로 대출도 막혀 운영의 한계점에 도달했다”며 “지금 상태로는 10년 이내 농어촌 응급의료기관 대부분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병원장들은 이어 “공중보건의 지역응급의료기관 우선 배치와 의료인력 기숙사 확대 등 인력난 해소를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제도개선을 요청했다.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최선국 위원장은 “전남은 전국에서 의료취약지가 17곳으로 가장 많고 지방의료원도 의료인력 부족으로 진료과가 폐지되는 등 삼중고를 겪고 있다”며 “의료인력난 해소를 위한 대책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최 위원장은 “의사 증원 문제도 진척되지 않는 상황에서 공중보건의 감소는 농어촌 응급의료기관뿐 아니라 공공의료 체계를 흔들고 있다”면서 “국가 차원의 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전남도와 함께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남도 관계자 역시 “전국적으로 공중보건의 병역자원이 많이 줄어 도내 공중보건의 감소가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도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의료공백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남의 지역응급의료기관은 32개 병원에 307개 병상이 지정돼 있고, 22개 시군 중 함평군과 화순군은 지정병원이 없는 상태다. 3월 현재 도내 공중보건의는 총 609명(의과 301명, 치과 106명, 한의과 202명)이며 공공보건기관 548명, 공공·응급의료기관 53명, 병원선 등 8명이 배치됐다. 이중 도서 89명, 벽지 23명 등 도내 취약지에 배치된 공보의가 18.4%에 이른다. 또 배치 공중보건의 중 1년차가 258명, 2년차 177명, 복무 만료를 앞둔 3년차가 174명에 달한다. 이에 전남도는 신규 배치 153명, 도간 이동 110명 등 올해 공중보건의 263명의 우선 배정을 정부에 요청하고 있다. /정근산 기자

강 시장 “무등산 정상복원 우선 고민”

케이블카 추진은 ‘아직’

환경부가 설악산 국립공원에 케이블카 설치를 조건부 허가해주면서 지역 사회에서 제기된 무등산 케이블카 설치 요구에 대해 강기정 광주 시장은 “아직 추진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강 시장은 20일 기자들과 차담회에서 “무등산 군부대 이전과 정상 복원을 우선 고민하고 있다”며 “이전·복원이 끝나면 기존 군용도로에 대한 (활용·원상 복원 등) 문제가 필연적으로 제기될 것인데, 일단은 그런 문제를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국립공원 설악산의 케이블카가 사실상 허용됨에 따라 잠시 수면 밑으로 가라앉았던 무등산 케이블카 설치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지역 시민

단체를 중심으로 나오고 있다. 반면 지역 환경단체들은 케이블카가 들어오면 환경 파괴가 가속화 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무등산의 접근성을 높여 관광산업 활성화를 꾀하지는 찬성 의견과 멸종 위기 야생 동·식물의 생존에 영향을 미치고 환경을 파괴한다는 반대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것으로 지역사회의 갈등이 재현될 우려가 나온다. 한편, 무등산 정상 상시 개방과 관련 광주시는 공군, 국립공원공단과 협의해 오는 9월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정상 부위에 주둔한 방공포대도 대상지를 모색해 연말까지 이전 계획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길용현 기자

광주 군공항 특별법, 4월 국회 통과 촉각

국방위, 내달 4~5일 심사

TK 신공항 연계처리 주목

광주 군공항 특별법의 4월 국회 처리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0일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의원(광주 서구갑)에 따르면 광주 군공항 특별법을 다룰 국회 국방위 법률심사소위원회가 4월 4~5일 열릴 예정이다. 군공항 특별법은 지난달 21일 법안소위에 1번 법안으로 상정됐으나 심의가 미뤄졌다. 당시 회의에서는 군공항 이전에 따른 ‘기부대 양여’ 부족분에 대한 국가 재정을 지원하는 방안이 쟁점으로 다뤄졌다. 국방부와 기재부는 법안소위가 다시 열리기 전까지 협의를 거쳐 쟁점 사항을 조율할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와 함께 ‘쌍둥이법’으로 추진 중인 대구·경북 신공항 특별법 심의도 오는 21일 국회 국토교통위 교통법안심사소위에서 열린다. 지난달 열린 국토위 법안심사에서는 가덕도

신공항의 위상이나 영남 관문·중추 공항으로 지위가 흔들리는 것을 우려한 부산 지역 민주당 의원의 반대로 심의가 보류됐다. 대구·경북신공항 특별법은 중추공항 명칭과 최대 중량 항공기의 이착륙이 가능한 활주로 길이, 이전 관련 국비 지원 등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최근 국토부가 2030부산세계박람회 일정에 맞춰 2029년 12월 가덕도 신공항을 조기 개항할 계획을 밝힌 데 이어 국토위 위원 간 조율도 상당히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경북 신공항 특별법과 광주 군공항 특별법이 소관 상임위 일정에 맞춰 심사를 통과하면 4월 국회 본회의 의결도 무난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송갑석 의원은 “광주나 대구 모두 공항 이전을 할 때 국비 지원이 가능하다는 것을 특별법으로 명시한 것에 의미가 있다”며 “4월에 대구와 함께 특별법이 차질 없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길용현 기자

단, 한채의 집을 짓더라도 내 집 짓는 정성으로
고객 한 분 한 분의 마음을 담은 명품주거공간으로
삶의 프리미엄을 더해 온 기업, 골드클래스
그 기술과 정성으로 고객감동을 더해 나가겠습니다

행복 위에 지은 집!
GOLD CLASS

골드클래스

골드클래스(주) · 골드디움(주) · 골드종합건설(주) · 보광건설(주) · 보광종합건설(주) ■ 주 소 :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1101 (화정동) 골드클래스 ■ 문 의 : 062) 233-3999